



▷사극을 통해 역사를 오늘의 이야기로 전하는 김재형PD가 '용의 눈물' 촬영현장에서 송재호씨(민재역)에게 연기를 지도하고 있다.



산문박의 硯

KBS '용의 눈물' 김재형PD

Q사인 자신에게 던지는 화두

“한껏한껏 살아 움직이려면 연출자와 연기자 하나돼야”
20여년전부터 '용의 눈물' 구상... “사극은 현실보는 거울”
인연 닿으면 불교방송에서 '원효대사' 연출했으면...

'용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

작년 '김현철 청문회'와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술하게 '용의 눈물'은 화자됐다. 한편의 드라마는 한 시대의 거울임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조선초의 격동기를 오늘의 거울로 만들어 내는 김재형(62)PD. 알고보면 그도 술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김PD에게 평생의 화두이자 구도의 눈물인 것이다.

PD로서의 그의 삶은 뼈를 깎는 구도행이다. 드라마 한 장면을 찍기위해 그가 던지는 'Q' 사인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나 다름 없다. 그 사인을 받아 연기하는 연기자 그의 영혼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없기에 그의 눈과 정신은 연기자의 몸짓과 대사로 불입되는 것이다. 하나의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지는 수천천의 장면들. 그 장면장면이 모여 한편의 드라마가 된다면 그의 Q사인 하나하나 그의 삶을 지탱하는 귀중한 요소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인을 던지고 나면 그 다음은 연기자의 몫입니다. 연기자의 동작과 대사 그리고 나의 제작의도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창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불입의 순간들을 통해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곤 합니다."

'용의 눈물'은 김재형PD에게 사극 연출가로서의 삶에 큰 분수령이 됐다. 70년대 중반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세종대왕'(월간 박종화 작)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으며 그는 이 작품을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발원을 했다. 그리고 96년말 장년퇴임을 하고 난 후 계약직으로 제작하는 첫작품으로 '용의 눈물'이 선택됐다. 때문에 김PD는 이 작품을 제대로 못만들면 다시 사극을 만들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메가폰을 잡았다.

"그 절박한 심정이 바로 일을 하는 힘이었습니니다. 백척간두에서 한발을 내딛는 마음이랄까요. 경안한 여건 속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용들도 바로 시대의 절박한 위안점에서 눈물을 흘렸듯이 말입니다."

"달동네" '영희의 일기' '빨' 등 초창기에 만든 연속극들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현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가 기대하는 감동을 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시기에 그가 생각한 것이 사극이다. 역사에 담긴 진실을 '오늘의 이야기'로 재창조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던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 보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 아닙니까. 사극은 바로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고 내일을 내다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존재의 가치를 깨닫길 바라며 사극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재의 자각. 바로 이것 때문에 김PD는 사극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이유로 인해 사극을 놓을 수 없다. 자신이 풀어내는 역사가 시청자들의 존재를 자각시킨다는 점에서 한 장면도 쉽게 여길 수 없고, 그런 철저한 제작 의욕을 바탕으로 그는 역사의 안과 밖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쉽게 그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 '국토관리'를 시작으로 '사모곡' '한명회' '서궁' 등 역사드라마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것보다는 더 좋은 장면이 나와야 하잖아'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큰 탓이라고 말하지만 김PD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드라마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정계층이나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위해 제작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감동을 요구한다는 의미

지요. 이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PD는 보편성에 자신의 제작의도를 집속시키는 일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 거기다 연기자의 연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담도 적지않다. 때문에 일단 촬영에 들어가면 자신을 불특정다수로 객관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버리는 곳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는 때론 진리를 온몸으로 터득한 김PD는 "PD란 연기자를 상대로 Q사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Q사인을 던지는 것이다"는 지론을 편다. 결국 대본과 연기자 그리고 PD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불특정다수의 보편성으로 자리를 잡은 곳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그의 머리 속에 떠오른 작품이 박종화의 '세종대왕'이었다. 군사독재시절 이성계의 건국이 갖는 쿠데타적 성격 때문에 드라마로 만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작품을 이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제작에 돌입한 '용의 눈물'을 통해 그는 이시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후련히 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의 용들이 흘린 눈물이 바로 오늘의 위정자나 재벌들의 눈물임을 역설할 수 있었고 왕의 눈물도 인간의 눈물임을 보여주며 절대 권력의 무상함을 외칠 수 있었다. 비로소 사극을 만드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었던 셈이다.

'용의 눈물'을 만들어 김PD가 한 순간도 놓을 수 없었던 화두는 바로 용들의 눈물을 우리시대의 눈물로 승화시켜 시대적 성찰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 화두의 해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심분 활용했다. 그래서 용들의 눈물 뒤에는 태조의 야심을 지지하기 위해 '방하착'을 가르치는 무학대사가 있었고 경순공주와 효령대군의 출가가 있었으며 감비와 태종의 지극한 불공도 담겨 있다.

'용의 눈물' 곳곳에는 불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배어있다. 그것은 김PD의 불교관이자 세계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계속 사극을 고집하겠다는 그는 '용의 눈물' 후속편으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를 영상으로 담을 계획이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을 그리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99년쯤 시청자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완경씨와 작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고 KBS와 계약도 마쳤어요. 제가 그리고 싶은 왕건의 정치철학은 '합(合)', 즉 단합과 통합입니다. 그가 나라를 세우는 과정과 그분의 '합'의 정신이 IMF시대에도 걸맞는 것 같고 후손들이 보고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PD는 이제 '용의 눈물'에서 보여준 무상의 이치를 원용의 세계로 끌어 올리려 한다. 그런 작업을 통해 김PD 자신도 한층 높은 자리에서 '존재의 자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에게는 하나의 원력이 있다. 원효대사를 영상이든 라디오 용이든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원효대사가 살던 당시 간절이나 세트를 정확히 고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TV 쪽보다는 라디오 쪽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원래 라디오 연출자로 출발했고 KBS 라디오 연출가 1기생인 만큼 자신이 있다. 인연이 닿는다면 불교방송에서라도 만들고 싶다는 것이 프리랜서로서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는 아직 할일이 많다는데 대해 무척 자부심을 갖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긴 시간 기획하고 준비한 작품을 후회없이 만들때 내가 역사 속에 살아 있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거든요."

글=김지연 사진=고명배 기자

취재수첩

김재형PD가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는 메달이 있다. 작고하신 장모님이 주었다는 옴마니반메달이 새겨진 메달. 미국 시카고 불타사에서 신도회장까지 했던 독실한 불자인 그의 장모님은 어느날 목에 걸고 다니던 메달을 사위에게 줬다. 사위는 장모를 보듯, 그리고 부처님을 모시던 그 분의 마음을 이어받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 옴마니반메달은 어려울때나 힘들때나 그에게 힘이 되었다. 김PD는 삼형동에서 태어났다. 할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삼형동 칠보사가 불교를 만난 첫 기억. 소풍 다니는 기분으로 다닌 칠보사에서 그는 노승 밑에 스님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진 벽화가 너무 좋았다. 움직일 때면 벽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불교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때. 수원 용주사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중학교 입학공부를

옴마니반메달 메달 항상 지녀 "은퇴 후 장애인복지 보탬될터"

하기 위해 한달 가량을 절에서 지내게 됐다. 매일 아침 예불하며 불교를 몸에 익혔고 그때의 기억으로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김PD. 동국대 재학시절 골절 수술이었던 선배 선진규경남도의원(한국청소년지도사회 회장)과 동창생인 박완일씨(정 전국 신도회장)의 영향으로 그의 불교관이 성립되어 갔다. "불자들은 부처님이 되려고 하기 전에 부처님의 자비심을 우선 본받아 실천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반야의 지혜와 언재나 따뜻하게 세상과 이웃을 돌보고 살 수 있는 보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현재 83세인 나이도 잊은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아버지를 본받아 부처님의 정신을 회향하며 장애인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이 김재형PD의 마지막 소망이다. 김PD는 4월1일 출간되는 브리태니커 세계연감 한국판에 화제의 인물로 수록된다.



▷김재형PD가 제작하는 사극에는 반드시 스님이 등장한다. 사진은 '용의 눈물'의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